

北韓에 核免罪符를 준 中國의 核實驗



이 창 권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위원

인간의 꿈은 칼을 쳐서 밭기는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풀베는 낫으로 개조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집권자, 특히 독재자가 되면 보습과 낫을 징발하여 칼을 만들고 창을 갈기 시작한다. 그런데 얼마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평화협정 서명식장에서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이제부터 총을 버리고 삽을 들자」고 했을 때 우리는 멋진 조각가의 작품을 대하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즉 UN본부 앞마당에는 옛 소련 조각가가 기증했다는 대장간 사나이의 동상이 서 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칼을 두들겨 보습을 만드는 힘찬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찌면 그 정신과 일맥상통하는듯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핵탄두에서 뜯어낸 쇠붙이로 만든 펜으로 가나다라를 쓰기 시작하는 어린이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느낌을 갖게 한 것이 이번 중국의 핵실험이며 그것은 지극히 짐작지 못한 처사이다. 단적으로 말해 이번 일은 理性的인 판단에 의하였다기 보다는 올림픽 유치에 실패한 분풀이와 그것 때문에 격분한 국민을 무마하기 위해 저지른 졸부적이고 감정적인 對應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전 세계의 핵감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즉 그간 어렵게 전략핵무기 감축조약(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에 합의하여 궁극적으로 이의 전면폐기의 길로 들어서려는 초강대국의 발걸음을 되돌려 놓고 만 것이다. 프랑스와 영국도 핵보유국으로서의 대책마련에 부심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중국의 처사는 그간 은밀히 핵개발을 꿈꾸어 왔거나 이미 이에 손대고 있는 나라들을 부추기는 과오를 범함으로써 대국의 체통에 먹칠을 한 것이 되었다. 특히 그것은 핵개발 의혹의 현장에서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궁지에 몰린 북한당국에게 免罪符를 발행한 격이 되어서 더욱 그렇다.

70년대 초 식자들은 20년 후에는 20여개의 핵무장국이 추가 등장할 것을 우려했지만 그간 인도가 핵문턱에 걸려 넘어진 것 이외엔 별다른 핵확산이 없었던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라는 제도적 장치 때문이었다.

인도는 캐나다에서 도입한 원자로로 플루토늄을 만들어 74년에 핵실험을 敢行했다. 그때 평화적으로만 쓰라는 조건으로 공급한 원자료가 무기제조용으로 轉用된 것에 격분한 캐나다가 강력히 항의하자 인도는 자기네는 오로지 평화목적의 핵폭발 연구개발을 위한 실험이었을 뿐이었다고 능청스럽게 시치미를 뚝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75년부터 매 5년마다 제네바에서 4주간씩 NPT 평가회의를 열어 핵확산 저지책을 논하게 되었고 90년엔 제4차 회의가 열렸던 것이다.

원래는 그때 이 회의의 존속문제와 95년도에 만료되는 핵비확산조약제도의 계속여부에도 합의해야 했으나 의견대립이 심하여 결의안 채택도 못하

고 말았고 양진영간의 합의점 마련을 모색하려고 애쓰던 의장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의장은 회의의 마지막날의 다음날 새벽 5시에야 폐회를 선언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핵보유국들이 포괄적 핵실험금지(CTB, Comprehensive Test Ban)를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지하 핵실험을 포함한 일체의 핵실험을 안하겠다고 약속해야 95년도의 회의개최에 합의하고 NPT제도도 존속시킬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핵무기 비보유국도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고 으름장을 놔는데 그때 나는 그것을 핵무기 개발도 不辭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그때까지 핵비확산조약 비가입국이던 중국은 프랑스와 함께 방청객 자격으로 그 회의에 참가하였으나 심정적으로 77클럽이 주축이 된 제3세계, 즉 핵비보유국 입장에 동조하는 듯 하였다. 그때 중국은 발언권은 없었지만 미·소의 獨走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주장하는 핵무기 비보유국들의 입장을 두둔하고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미·소 양국은 그 회의에 자국되었음인지 그 해엔 지하 핵실험을 6번, 다음해엔 3번씩으로 줄이다가 작년 가을부터 핵실험을 중단하여 왔다. 그래서 95년엔 NPT 평가회의가 再開되고 국제적인 핵감축이 이루어지리라는 묵시적인 합의가 조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장미빛 꿈을 중국이 깨고 말았다. 올림픽 주최 문제에 핵실험을 연관시킨다면 중국은 대국자격이 없다. 또 자기네가 보유중인 300~400기의 핵탄두가 너무 남아서 그것을 개조 설계하고 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핵실험이 부득이하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그만한 사정은 남들도 마찬가지로이다.

옛 소련지역에 산재한 15만명의 핵무기 관련 기술인력은 일거리가 없어 놀 정도이고 더욱이 생활마저 곤란한 형편인데다가 외국에서의 인력 스카우트 유혹을 물리치기도 힘든 처지인데도 러시아는 핵실험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nevada 사막 인근주민들이 그토록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선정에는 반대하면서 오히려 위험천만한 핵실험을 찬성하는 것은 그들 대부분이 핵무기 관련 직업 종사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각계 각층에 핵실험 再開를 위한 압력을 넣고 있고, 그밖에 군부와 군수산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도 클린턴 행정부는 핵실험을 自制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의 핵실험 재개로 이제는 모든 고삐가 풀리고 말았다.

세상이 어수선한 이때에 국내의 여기저기에서 사용후연료의 재처리 불가피성을 물고 나오고 있는 것은 無備有患의 우리 처지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여기서 말하는 無備라 함은 원자력정책이 없다는 뜻이고, 有患은 북한에게 밤낮 당하기만 하는 우리 실정과 일방적인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으로 순수한 기초연구의 길마저 막아놓은 족쇄를 의미한다. 가령 꼭 필요하고 값비싼 특수核種을 레이저로 분리하는 연구나 중수로에서 많이 生成되는 방사성 三重水素 분리까지도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에 묶여 마음대로 못하게 되었다고 연구원들이 불평하게되었다.

원래 핵비확산조약(NPT)의 취지는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의 핵무장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인데 일본은 재처리와 농축을 마음대로 하는데 애꿎은 우리는 평화용일지라도 그 언저리엔 얼씬도 못하는 형편이다. 이것은 분명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차 있고 한국은 이 모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힘 없는 나라이다. 그리고 우리는 核眞操帶를 스스로 차면서 자물쇠를 채웠고 그 열쇠를 남에게 넘겨주기까지 했다. 그렇다고 북한이 NPT조항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애먹이고 있고 거기에 중국마저 핵실험 한 때를 기회로 하여 재처리를 하겠다고 나선다면 그것은 집을 나설 때 그대로 둔 것을 오랏나무 밑에 와서야 갓끈을 매는 것과 같은 취급당할 우려가 있다. 이럴 때를 위해 침묵이 금이라는 격언이 생겨났을 것이다. 우리는 실천 못할 일을 먼저 말하고, 삼페인을 조금하게 터트리는 관습 때문에 손해 볼 때가 많다. 전반적으로 말이 너무

앞선다.

한국은 농축도 하고 재처리도 꼭 해야 한다. 이것은 總論이고 결론이며 또 우리의 장기 원자력정책이어야 한다. 그러나 各論에 들어가면 그럴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세상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도 없으려니와 남들이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두지도 않는 법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 전술을 희생할 수도 있고, 전략적 견지에서 국부적인 전투를 포기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지혜일 수도 있다.

독일을 보라. 연간 400톤 처리규모를 최신키로 건설했던 박카스돌프(Wackersdorf)의 재처리공장은 통일과 더불어 폐쇄키로 했고, 연간 35톤 규모의 칼스루헤(Karlsruhe) 원자력연구소의 재처리 실험시설도 뒤따라 해체한 것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他意에 따라 취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다시 말하면 통일독일 안에서는 플루토늄을 분리해선 안된다는 주변으로부터의 묵시적 압력에 견디다 못해 드디어는 막대한 건설비와 정성들여 건설한 최신키 시설을 미련없이 버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는 농축과 재처리를 해야 하지만 그 시기선정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은 우리나라도 농축시설도, 또한 농축우라늄도 국제시장에서 남아돌아 팔치꺼리인데다 핵탄두에서 해체되어 나올 다량의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처분 문제까지 겹쳐 재처리의 필요성은 당분간 호소력을 지니기 힘들게 되었다. 또 그러한 이유를 들어 그간 우리가 북한의 재처리 및 플루토늄 생산용이 분명한 가스냉각로의 건설을 극구 반대하여 오지 않았던가?

중국의 핵실험 재개로 소련에서 떨어져 나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및 벨로루시도 고개를 들지 모른다. 이들은 각각 1,804, 1,410 및 81기의 핵탄두를 물려 받았는데 그것은 핵 보유국으로서 발언권이 센 프랑스(525기)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물

량이기 때문이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와 南美 두나라 및 인도, 파키스탄도 핵문턱을 넘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日本의 대응과 북한이다. 일본은 밖으로는 조용하겠지만 안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게 틀림없다. 북한은 자기네의 핵정책이 옳았다고 여길 것이다. 역시 공화국을 영도하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英明하신 지침이 천번 만번 지당한 말씀이었다라고 무릎을 칠 것이 아닌가?

중국은 더 이상 북한에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중용할 수 없게 되었다. 아무리 힘세고 나이가 많더라도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상급생은 신입생에게 禁煙을 강요해야 소용없는 것과 흡사한 처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돌아가는데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으로 도덕적 聖人君子然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시골의 문학소녀적으로 철없이 보인다.

이번 중국 처사는 뒷골목 깡패들이 凶器만을 유혹을 불러 일으키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북한이 아무리 우리를 애먹이고 중국이 저런 식으로 치사하게 굴어도 흥분만은 禁物이다. 이런 때일수록 냉철한 이성적 판단과 장기적 안목으로 사태에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도 빨리 프랑스와 일본처럼 장기 원자력정책을 확립하여 잔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船長이 바뀌어도 좌충우돌하지 않도록 태극기를 단 이 배를 올바르게 운항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전문가와의 의논없이 일방적으로 중대선언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재처리 여론이 북한과 日本을 자극하고 민주우방과의 관계를 악화하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이번 중국의 핵실험에 고무되어 대량살상 무기생산에 박차를 가할 북한당국의 그릇된 생각이 한반도에 버섯구름을 생기게 하지 못하도록 백방의 대처방안을 철저히 강구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총을 놓고 삼을 쥐자는 인류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